



한우리독서신문

에듀
스페셜

• 에듀 스페셜 [1-3]

대입 승부처 국어, 관건은 독해력이다!
초등 독해력 확실히 잡는 법

• 에듀&라이프 [4-5]

초등생활 처방전
초등 1학년 3월 점검, 이렇게 해 주세요!
글쓰기 비밀수업
글 쓰는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
쉽게 따라하는 홈레시피
시금치 크림 파스타

• 이달의 책장 [6-9]

3월의 추천도서
더불어 사는 세상, 공동체
그림책 수업
아이들과 슬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해 봐요
진로 내비게이션+
인공지능 전문가

• 엄마를 위한 에세이 [10-11]

책과 하루①
도서 직접 선택권과 이천 원
엄마선생님의 성장일기⑦
“엄마선생님이 도와줘서
하나도 안 떨렸어!”

대입 승부처 국어, 관건은 독해력이다! 초등 독해력 확실히 잡는 법

한우리독서신문 편집부

“국어 중요성 확연히 높아졌지만 현실은...
‘국어노베’ 호소하는 중고생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급 분위기를 만끽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중고등생이 시험, 성적, 입시 걱정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들 가운데 스스로를 ‘국어노베’라 칭하는 아이가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어노베란, 공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뜻하는 신조어 ‘노베(노 베이스(No Base)의 준말)’와 국어의 합성어인데요. 수험생 커뮤니티나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어노베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어노베에게 문제집이나 인강 좀 추천해 주세요.’와 같은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어는 우리말로 이루어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목일 뿐인데, 왜 학생들은 기초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할까요?

이달의 독서 명언



“배움에 대한 애정과
세상을 등진 외딴 곳.
책이 주는 그 모든
달콤한 평온.”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다른 과목은 다 되는데
국어만 완전 노베예요.

국어노베 좀 도와주세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비 고인데 성적이 안나타요.
국어 편의과사 잘보는 방법은 뭐

국어 어찌죠? 낭문학, 문학
뾰족 못 풀고 있어요.

국어 잘하시는 분들 팁 좀 주세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입 승부처 된 국어, 관건은 '독해력'!



몇 년 전부터 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난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 수능 국어는 '불국어', '국어쇼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초고난도를 자랑해 많은 수험생에게 충격을 안겨 줬습니다. 당시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이었는데, 처음으로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139점)을 훌쩍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2021학년도 수능 국어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정되어 쉬웠다고 평가되었으나,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을 기록했습니다. 수학 가나형 표준점수 최고점은 이보다 낮은 137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국어 영역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음을, 이에 따라 국어가 수능의 확실한 승부처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국어는 단순 개념 파악을 요구하기보다 다채로운 분야의 문학 혹은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여 추론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갈수록 지문의 밀도는 높아지고 길이는 길어지며, 다루는 소재나 주제 역시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학, 철학, 예술, 기술공학, 생활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독해력'입니다. 문제와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없다면, 국어 성적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초등부터 길러야 할 독해력

다독과 문제집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독해력은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초등 시기부터 아이의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독해력 문제집을 풀게 하는데요. 근본적 역량 향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방법을 실천하는 자체에만 의의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두 학부모님의 사연으로 이를 면밀히 짚어 보겠습니다.

① '다독의 배신' - '많이 읽기'와 '제대로 읽기'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워낙 좋아했어요. 평소 또래들보다 2배 이상은 읽었죠. 당연히 독해력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학 학원 상담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독해력이 부족한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당황했어요. 그 동안 책 많이 읽는다고 뿌듯해하고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님



책을 많이 읽어 왔던 아이가 정작 독해력이 부족해 고민이라는 이 사연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됩니다. '독서가 왕도'라는 말도 있듯이, 보통 책을 많이 읽으면 독해력은 물론 학습 역량도 키워진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독서는 학습 역량을 키우는 기본 방법이 맞습니다. 독서를 '제대로 했을' 때 말입니다.

독서는 연령에 따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읽기에 대한 흥미를 키우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책 속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낼 줄 알아야 하지요.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일일 경우, 자칫 독서 단계가 저학년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읽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흥미 위주의 책만 골라 읽거나, 서사 중심 독서를 반복하다 보니 독해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독해 역량을 제대로 키우려면 무작정 책을 많이 읽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 연령에 맞는 독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독해문제집의 진실' - '문제 풀이'보다 '읽기 역량 향상'이 우선입니다.

"좋다는 독해문제집을 찾아 아이에게 풀게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문 독해를 못해서 깜짝 놀랐어요. 채점을 해보니 틀린 문제도 상당히 많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 독해문제집을 계속 풀게 하는데, 아이는 영 싫어하네요. 실력이 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초등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B님



아이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 독해문제집을 활용하는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독해문제집은 수학, 영어와 함께 꼭 한두 권씩 풀어야 하는 필수 문제집으로 자리 잡았지요. 과연, 독해문제집은 독해력을 키우기에 적합한 방법일까요?

많은 초등 교사들이 '초등 시기에는 독해문제집 풀리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글을 읽고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도, 중심 생각 등을 자신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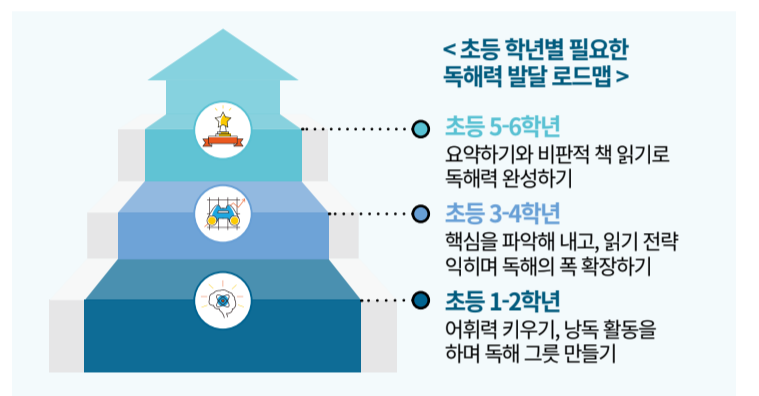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충분한 배경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글에 대해 사고(思考)하는 능력이 갖춰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독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독해문제집은 짧은 지문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지문 읽기-문제 풀기 형태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배경지식이나 어휘력, 읽기 전략 등 독해를 위한 기초 역량을 쌓아야 할 시기에 짧은 호흡의 읽기 습관이나 문제풀이를 위한 읽기 습관이 고착화되면, 정작 독해에 필요한 능력이 향상되지 못할 뿐더러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읽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 시기에는 제대로 된 독서를 통해 읽기 집중력을 키우는 한편, 독해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워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년별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게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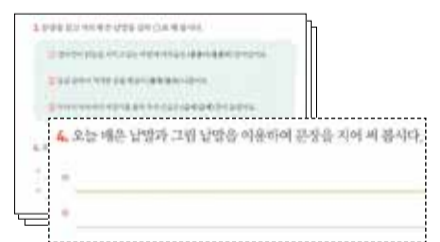
그렇다면 초등 시기 독해력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우리독서토론훈 오용순 연구소장은 '초등 시기 학년별로 갖춰야 할 독해 역량이 따로 있다'며, '학년별 독해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에 맞는 역량을 쌓아야 중등 때 국어와 주요 과목 학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① 초등 1~2학년 - '어휘력 키우기', '낭독 활동'을 하며 독해 그릇을 만들어요

초등 1, 2학년 교과는 아이가 한글을 깨치고 읽는 활동을 하며 기초적인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해독이 서툰 해당 시기의 아이들이 문자와 소리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줄 알고, 이를 이미지로 연상할 수 있도록 익혀 '독해 그릇'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독해 그릇을 잘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문자와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어휘력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낭독을 통해 문자와 소리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입니다.

읽기의 기초는 어휘력입니다. 초등 1, 2학년 때 교과 공부에 약 5천 개의 어휘가 필요하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와 과학 등 교과가 추가되면서 학습을 위해 알아야 할 어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휘력이 약하면 기본적인 교과서 읽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지요.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지요. 어휘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경험'인데요. 배운 단어를 넣어 짧은 문장을 지어 말해 보거나, 글로 써 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 어휘력을 키우려면 단어를 직접 사용해 짧은 글짓기를 해보는 연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시는 한우리 초2 <어휘리더2> 내용.

낭독은 기초 읽기를 학습 중인 초등 저학년에게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뇌가 골고루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문자와 소리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지요. 책 내용이나 어휘를 훨씬 오래 기억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낭독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끊어 읽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 '띄어 읽기',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알기' 등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② 초등 3~4학년 - '핵심을 파악'하고, '다양한 읽기 전략' 익히며 독해의 폭을 확장해요

초등 3, 4학년부터는 교과목에서 독해력이 더욱 크게 요구됩니다. 국어는 동시나 짧은 이야기글에서 벗어나 설명문, 주장문 등 비문학으로 확대돼 글의 구성과 내용, 핵심을 포착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교과목에 사회와 과학이 추가되면서 수업 내용이 점차 심화되며, 표·그림·사진





▲ 이 시기에는 글 유형에 따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예시는 한우리 초3 <독서리더1> 내용.

자료 등 다양한 읽기 자료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도 필요하지요. 따라서 이 시기 필요한 독해 능력을 키우려면 글 속에서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해 내는 훈련과 더불어, 지문이나 읽기 자료 속 생략된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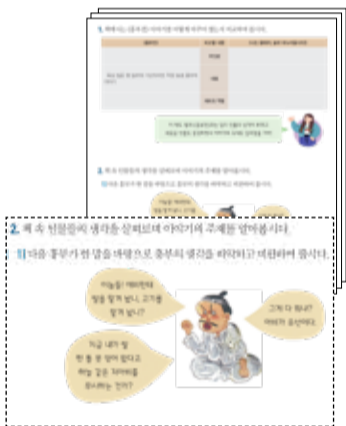
글 속에서 중요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국어 뿐 아니라 모든 교과 과정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길고 복잡한 글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독해하여 중심 내용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글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글감을 파악하고 중심 문장을 선별해 표시합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하지요. 주요 내용을 먼저 표시한 후, 짚막하게 자신의 말로 바꾸어 간추려 보는 활동을 더한다면 핵심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③ 초등 5~6학년 - '요약하기'와 '비판적 책 읽기'로 독해력을 완성해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교과 난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교과목 전반에 걸쳐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지문의 양도 길어져 읽어 내기 까다로워지지요. 국어 과목은 '읽기의 목적을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학습 요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향후 본격적인 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초등 고학년년부터 수준 높은 독해력이 요구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스스로 글을 분석한 뒤 의미를 재구성하는 '요약하기'와 독서 토론을 통한 '비판적 읽기'를 훈련하는 것이 독해력을 완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약하는 활동은 글 속에서 주요 내용을 뽑아 이를 중심으로 간추려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 잘한다는 것은, 길고 어려운 지문도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어 내 핵심 내용을 짚어 잘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과목 지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초등 고학년 때야말로 요약하기 훈련을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다만, 요약하기는 어떤 글이나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이야기글은 '인물-사건-배경'의 요소가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형태로 펼쳐 집니다. 정보글이나 주장글은 '머리말(서론)-본문(본론)-맺음말(결론)' 구조 내에서 전달하려는 정보에 따라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정의와 예시, 주장과 근거 등으로 구성되고요. 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다르게 요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요약할 때는 글의 중심 내용이나 문장을 그대로 늘어놓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자신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등 5학년년부터 교과목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비판적 읽기는 책이나 지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책 속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주인공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



▲ 초5부터는 글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읽으며 깊이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예시는 한우리 초5 <논리리더1> 중.

을까?', '현상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와 같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깊이 읽는 것이지요. 이러한 읽기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독서 토론'입니다. 독서 토론은 책 속에서 발췌한 주제를 사안으로 두고, 찬반 양쪽이 나뉘는 상태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책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 비판적 읽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습니다.

한우리로 독해력 골든타임을 잡으세요!

독해력은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지기에 초등 시기에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우리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은 학년별 독해력 향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독해 역량과 전략을 키워 줍니다. 최신 교육과정과 교과서, 평가 유형, 사회 이슈를 즉각 반영하여 매달 새롭게 엄선한 필독서, 매달 새롭게 개발하는 교재로 수업하며,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독서지도사가 자녀 실력과 수준에 맞춰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6세부터 고등학생 과정까지 유치/초/중/고 전학년 단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전국의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지역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초등 정규 프로그램 학년별 주요 특징>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어휘리더1,2>	<독서리더1,2>	<논리리더1,2>
교과 연계 도서 읽기 국어, 통합 교과, 수학과 연계된 문학/정보 도서를 읽고 내용 정리를 하며, 학습 배경 지식과 독해력을 키웁니다.	교과 연계 도서 읽기 사회, 과학 등 탐구 과목 주제와 관련한 현상과 원리를 재미있게 배웁니다.	교과 심화 도서 읽기 역사·인물·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글쓰기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휘력 확장 활동 필독서 어휘로 문장을 만들고, 관용어와 속담을 알아보며 어휘력을 기르고, 문장부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올바른 문법의 기초를 익힙니다.	서술형에 답하며 내용 이해 서술·논술하기,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 내용을 깊이 이해하며, 글 속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내는 훈련을 합니다.	실전 토의·토론 활동 전략 수립, 개요서 작성, 찬반토론, 자기·동료 평가, 정리 스피치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전별 실전 토의·토론을 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글쓰기 일기, 독서감상문, 동시, 편지글, 소개글 등 다양한 영역의 글쓰기를 올바른 형식에 따라 훈련합니다.	글쓰기 스피치 후 평가 활동 갈래별 글쓰기와 토의·토론 스피치 후 자기·동료 평가를 하며 활동 내용을 점검합니다.	주요 어휘·문법·표현 익히기 부록 '어휘력 기르기'를 통해 사회문화, 지리, 과학 과목 필수 어휘를 익힙니다.
바르게 읽기 활동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문자와 소리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바른 읽기 습관을 익힙니다.	다양한 글 읽고 생각해 유추하기 설명글, 극본, 주장글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접하며 읽기 전략을 익히는 한편, 글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추론합니다.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확장 활동 비문학 도서를 중심으로 글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요약하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훈련합니다.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1577-1909

이제 쫄든 교과 공부
핵심은 **독해력**
독해력을 키워
공부를 키우세요

한우리 수업
상담신청하면
신세계 상품권 증정

SHINSEGAE
신세계 상품권
₩5,000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초등생활 처방전

‘어서 와 입학은 처음이지?’ 초등 1학년 3월 점검, 이렇게 해 주세요!

이서윤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 운영

STEP 1 부모님이 점검해 주세요!

아래는 초등 1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할 필수 학교 생활 내용들입니다. 아이와 이야기 나누며 학교 생활에 얼마나 적응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순번	내용	확인(V)
1	학교 이름을 바르게 알고 있나요?	
2	학교의 이곳저곳을 알고 있나요?	
3	학교 복도에서 우측통행을 하고 사뿐히 걷나요?	
4	화장실에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여나요?	
5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옷을 입고 벗으며 불일을 볼 수 있나요?	
6	화장실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나요?	
7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나요?	
8	수업시간에 화장실이 급하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말할 수 있나요?	
9	급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나요?	
10	식판을 가지고 가서 배식받을 수 있나요?	
11	젓가락질을 잘할 수 있나요?	
12	음식을 골고루 먹나요?	
13	줄을 바르게 설 수 있나요?	
14	쓰레기를 교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나요?	
15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서 쓰레받기에 넣을 수 있나요?	
16	사물함과 책상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나요?	
17	수업 시작 전에 교과서를 스스로 펴 놓을 수 있나요?	
18	담임 선생님의 성함을 알고 있나요?	
19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20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나요?	
21	의자에 바르게 앉을 수 있나요?	
22	연필을 바르게 잡을 수 있나요?	
23	글씨를 쓸 수 있나요?	
24	색칠할 수 있나요?	
25	가위질을 할 수 있나요?	

STEP 2 학습 내용 확인해요

초등학교 입학 후 한 달 동안은 적응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보고, 본격 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1학년 1학기에 무엇을 배우는지 간단하게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국어(가/나), 수학, 통합교과(봄, 여름),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를 배웁니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 익히기예요. 수학에서는 50까지의 수를 알고, 한 자리 수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봄과 여름 교과서에서는 학교, 봄, 가족, 여름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부르고 만들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활동을 해요. 안전한 생활 시간에는 생활에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웁니다. 가정에서 글씨 쓰기와 연산 연습을 꾸준히 하고, 책을 읽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니 함께 챙겨 주세요.

STEP 3 친구, 선생님과 관계 맺는 법 도와줘요

초등학생이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와 말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유치원을 벗어난 초등 1학년에겐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챙겨 줄 수 없다는 사실!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책을 읽은 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 같이 놀래?”라고 놀이를 제안하는 연습을 해봐도 좋아요.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친구가 하고 싶은 놀이와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돌아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가정이라면 큰 걱정을 했을 겁니다. 지난 한 해, 모두가 코로나 진통을 겪었기에 초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요. 현재 우리 아이들은 첫 입학과 학교 생활을 잘 준비했을까요? 또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가면서 하는 방식 등 친구와 놀 때 필요한 기본 내용을 평소 계속 말해 주세요.

첫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도 알려 주세요. 저학년은 담임 선생님의 허용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돼”라고 할 때가 더 많지요.

아이가 주눅 들지 않게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대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선생님의 장점을 하나라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부모님이 아이 앞에서 담임 선생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 주면 아이도 선생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생님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아이를 더욱 예쁘게 보게 되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하기, 선생님이 물건을 주실 때 두 손으로 받기, 웃어른이 말씀하실 때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린 후 말하기 같은 예절 교육도 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본격 교육과정이 들어갈 때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생활의 시작인 1학년, 잘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쉽게 따라하는 홈레시피

3월, 뽀빠이 기운 솟아라! 시금치 크림 파스타

이동미 푸드 크리에이터, <아이가 좋아하는 엄마표 요리 100> 저자
(인스타그램 @dongmi_lee)

새 학기를 시작하는 3월. 바뀐 교실도 어색하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도 낯설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긴장될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뽀빠이’ 기운 솟아나는 체력. 체력왕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로 간단 요리 한 번 만들어 볼까요? 초록 채소를 편식하는 유아들도, 시금치 무침이 지겨운 학생들도 좋아할 영양 가득 근사한 한 상을 소개합니다.





글쓰기 비밀수업

글 쓰는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

권귀현 작가, <초등 글쓰기 비밀수업> 저자

탄탄한 문장력

가장 먼저, 글 쓰는 아이에게는 문장력이 있습니다. 이는 화려한 표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 생각을 문자로 정확하게 옮기는 능력을 뜻합니다.

‘계속 아까 빠져서 못 놀아서 그래서 외로웠다.’ 초등 3학년 아이의 문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을 쓴 아이는 사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표현하려고 했답니다. “친구랑 놀다가 싸워서 화가 났다. 그래서 혼자 놀았는데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기분이 안 풀렸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더라. 그래서 외로웠다.”

아이의 설명을 들어야 글이 이해가 된다면 그 아이는 문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아서, 기억이 안 나서, 생각하기 싫어서 아이들은 대충 쓰고 맙니다. 이런 습관으로는 문장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다듬어 낸 자기소개서가 불과 2~3분 만에 불합격자 더미로 분류되는 이유, 바로 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장력은 소통의 기본입니다. 읽는 문장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든 누구든 기본이 안 된 학생이라고 판단하겠죠? 문장력은 오직 글쓰기를 통해서만 기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구성력

구성력은 이야기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뻔한 결론도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 또한 글쓰기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글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됩니다. 즉, 독자를 생각하며 글을 쓴다는 말이죠. 아직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쓴 글은 꼭 스스로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 부

모נם은 글의 포인트마다 적절한 반응을 보여 주세요. 재미 있는 부분에서는 웃어 주고, 긴장되는 부분에서는 숨을 죽이세요. 아이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태도로 글을 쓸 때 글감들을 흥미롭게 배치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구성력은 주장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등의 논리적인 글쓰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논리적인 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읽고 싶다면, 또 읽으면서 웃게 된다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놀라운 상상력

글 쓰는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무관한 듯한 재료를 연결해 한 편의 글에 넣는 게 상상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1년은 짧은 소설을 읽은 것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초등 3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과 헤어지며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의 방귀냄새가 지독하다는 글을 쓰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냄새를 맡았다면 아마 우리가 졌을 것이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을 소설 읽기에 비유하고, 아빠의 방귀를 400년 전 조선으로 가지고 가는 건 상상력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상력이야말로 미래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창의성의 원천이 아닐까요?

이런 상상력을 연필 한 자루와 몇 장의 종이만 가지고도 키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복잡한 공식을 외우거나 가설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유독가스에 중독되거나 폭발을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맘껏 연결하고 붙이고 이어도 됩니다. 맘에 안 들면 다시 떼거나 버려도 무방합니다. 글쓰기에서는 모든 게 허용됩니다.

부드러운 감수성

글쓰기에 재미가 들면 글을 더 잘 쓰고 싶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감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길러 줍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 힘센 나뭇잎은 바람이 무서워 감싸 주지만 힘이 약한 잔디는 바람이 만만하게 보고 날려 버린다. 가족들이 산책을 나왔나 보다. 다 행복해 보인다. 덩달아 참새도 기분이 좋아 짹짹거리며 노래한다.”

초등 5학년 학생이 표현한 공원의 풍경입니다. 글 쓰는 아이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의 변화, 세상의 사건사고에 눈을 뜨고 귀를 열게 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마음 따뜻하고 주변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모든 부모의 바람이 아닐까요?



날카로운 질문력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는 일은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결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현 상태에 머물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문제를 찾게 해 주는 원동력이 바로 질문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물음표와 느낌표의 끝없는 이어달리기’라고 정의합니다. 글을 쓰는 아이는 질문을 만드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물음표를 붙입니다.

글쓰기로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쓰기, 생각과 감정을 열어주는 글쓰기를 통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 주세요.



1) 마늘과 베이컨은 먹기 좋게 자르고,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준다.



2) 끓는 물에 소금 1t를 넣고 스파게티면을 넣어 봉지에 적힌 시간대로 삶는다.



3) 초퍼에 우유 150ml와 시금치를 넣어 갈아 준다.



4) 올리브오일에 마늘과 베이컨을 넣어 마늘이 노릇해지도록 볶는다.



5) 3의 시금치 소스와 생크림, 면을 넣어 소스가 잘 배도록 1분 정도 끓인다.



6) 소금, 후추, 파마산치즈를 넣어 잘 섞은 뒤 그릇에 옮겨 담는다.

시금치 크림 파스타 (2인분)

- 재료: 시금치 한줌 (약 100g)
- 스파게티면 2인분 (약 150g)
- 마늘 5알, 베이컨 5줄
- 생크림 150ml
- 우유 150ml
- 올리브오일 1큰술
- 소금, 후추 약간씩
- 파마산 치즈 취향껏

영양TIP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 중에서 비타민A가 가장 많고, 무기질도 풍부해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비타민A는 피부와 점막의 활동을 높여 면역력을 길러주고, 눈의 피로,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지요.



3월의 추천도서

더불어 사는 세상, 공동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서 가정을 이루고, 친구를 만들고, 마을을 이루고, 또래 집단을 만듭니다.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 나만 편하고 싶은 생각이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행복만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중요하고, 더불어 어울리면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 학교, 동네, 사회 등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공동체에 관련된 책을 읽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도서관 · 한우리도서선정연구회

사서 길난영 선정위원 강은영, 김래덕, 김슬기, 김정순, 박미영, 박정연, 박주영, 박준희, 송지은, 안미민, 윤라성, 윤희순, 이은주, 이지윤, 이혜정, 장동숙, 전미경, 정신영, 정인정, 정지화, 최은주, 표재은, 한영숙, 황경희



초등 저학년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다이언 디살보-라이언 글 / 김선희 옮김 / 나무상자 펴냄

마시와 로사 할머니는 건물이 헐린 빈터에 시청 허가를 받아 정원을 가꾸기로 한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참여하여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은 예쁜 꽃과 채소로 가득하다. 하지만 동네 정원 가꾸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마시는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고 멋진 마을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다룬 그림책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은 물론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조용한 가족

리비 다온 글 / 레나 구베르만 그림 / 서소영 옮김 / 키즈엠 펴냄

작은 소음도 참지 못하는 바커 씨 가족은 아담한 아파트에서 조용하게 산다. 너무도 조용한 바커 씨 가족은 이웃의 코고는 소리, 과일 가는 소리가 시끄러워 이웃을 찾아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 이런 바커 씨 가족에게 엄청난 일이 생긴다. 집 앞에 공원이 생겨 공사를 한다. 가족은 공사를 막으려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들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알게 된다. 바커 씨 가족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소통하는 방법,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 저학년

텃 빈 냉장고

가예탕 도레위스 글 / 박상은 옮김 / 한솔수북 펴냄

거리의 약사 앙드레가 할아버지는 먹을 것이 당근 세 개뿐이라 위층으로 올라간다. 2층에 사는 나빌 아저씨도 달걀 두 개와 치즈 한 조각이 전부여서 둘은 다시 위층으로 간다. 그곳에서 피망과 쪽파를 얻고 다시 위층으로 가 토마토 다섯 개를, 또다시 위층에서 밀가루, 버터, 우유를 얻어 특별한 파이를 만든다. 다른 아파트와 거리에서도 이웃들이 함께 파이를 만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다 앙드레 할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난다. 아파트를 배경으로, 서로의 위층으로 또 그 위층으로 올라가 이웃이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이 흥미롭게 진행된다.



유치

와글와글 토끼 아파트

노하나 하루카 글·그림 / 이여주 옮김 / 문공사 펴냄

토끼 아파트는 옥상이 있는 5층 건물로 모두 24개의 집이 있다. 어느 날 아침 새로운 토끼 가족이 5층으로 이사 온다. 아기 토끼들은 사과를 들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가고 엄마 아빠 토끼는 집을 꾸민다. 아기 토끼들이 돌아오고 이웃집 토끼가 초대장을 내민다. 옥상에서는 이웃들이 토끼 가족을 위한 이사 축하 파티를 연다. 즐거운 파티가 끝나고 토끼 가족은 이사 온 토끼 아파트를 좋아하게 된다. 토끼 가족이 이사 온 날의 하루를 통해 다른 듯 비슷한 토끼 아파트 이웃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서 이웃 간의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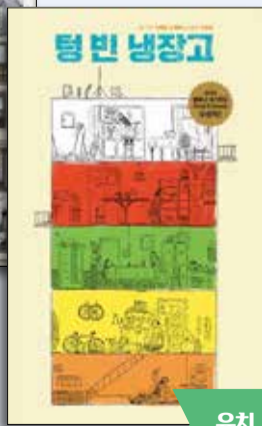
훌륭한 이웃

엘렌 라세르 글 / 질 보노트 그림 / 엄혜숙 옮김 / 풀과바람 펴냄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늑대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나 늑대 가족은 친절하고 멋진 이웃이 된다. 그 후 새 이웃들이 계속 이사를 온다. 몇몇 양들은 동네를 떠났지만 새 이웃들 덕분에 조용했던 아파트는 점점 시끌벅적 변화하면서 멋진 일들이 생긴다. 길가에는 채소밭이 생기고, 1층에는 정원이, 위층에는 테라스가 생기며 훌륭한 이웃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한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정면에 한 아파트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지루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찾는 재미가 있다.



유치



유치

이웃과 함께한 멋진 하루

줄리아 듀랑고 글 / 비앙카 디아즈 그림 / 이동준 옮김 / 고래이야기 펴냄

이웃집 할머니와 친구로 지내는 윌슨은 할머니의 집이 낡아서 여 기저기 고칠 곳이 많음을 알게 된다. '언젠가' 꼭 자신이 집을 고쳐 할머니를 기쁘게 해 줄 거란 말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다짐하듯 말한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모여들어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맡아 집 안 곳곳을 수리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이웃과 함께 사는 즐거움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림책이다.



초등
중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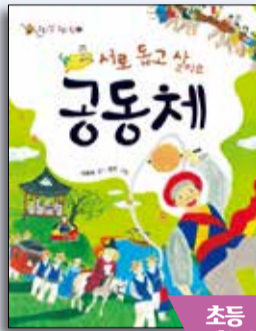
최악의 모둠? 협동으로 바꿔 바꿔

방미진 글 / 이지는 그림 / 한겨레아이들 펴냄 / 한우리 필독서 선정

학교와 가정, 이웃에서 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집단에서 요구되는 기본 가치인 협동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주인공 세라는 새 모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모둠 활동에 빠지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모둠이 엉망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라는 모둠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넷이 함께하면 더 즐겁고 간단한 일이 된다는 것을 느낀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과도 협동으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초등
중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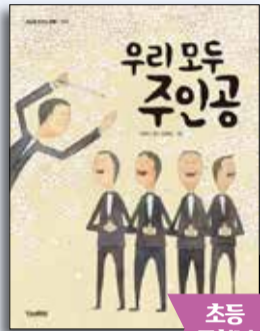


초등
중학년

서로 돕고 살아요 공동체

이창숙 글 / 상미 그림 / 상수리 펴냄

'우리 열 우리 힘'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서해안의 느티골이라는 작은 마을을 통해 조상들의 공동체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바다에 나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풍어제', 바우와 연이의 혼례처럼 잔치에서 서로 돕기 위해 만든 '계', 늙고 가난한 사람들도 멋있게 자기 몫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술잎 따기'나 '두구치레' 등 다양한 옛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현대의 공동체까지 알려 준다.



초등
중학년

우리 모두 주인공(축제)

최형미 글 / 김완진 그림 / 킨더랜드 펴냄

학교에서 열리는 매화 축제를 방송국에서 찍는다는 소식을 들은 반 아이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합창을 하기로 한다. 평소에 소극적이던 민철이가 지휘를 맡고, 학급 회장 인혜는 피아노 반주, 가수를 꿈꾸는 은지는 독창을 맡기로 한다. 하지만 합창 파트 결정과 뽀뽀한 연습 계획표를 만든 민철이에게 아이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급기야 은지는 자신의 독창을 지적하는 민철이 때문에 합창 연습에 빠진다. 합창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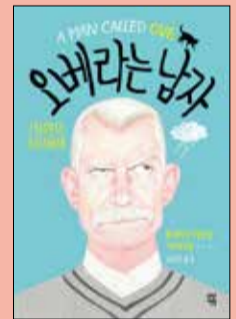
초등
고학년

혼자라서 지는 거야

장성익 글 / 송하원 그림 / 풀빛미디어 펴냄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알려 준다.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협동조합의 특징과 제도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세계의 협동조합 강국들과 잘 알려진 협동조합 기업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와 사례,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까지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달의 학부모 추천 도서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베크만 글 / 최민우 옮김 / 다산책방 펴냄

고집스럽고 완고한 원리원칙주의자 오베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렸다. 메마르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지만 그때마다 성가신 이웃들은 번번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려 대고, 이웃들이 일으킨 사소한 문제들은 오베의 마지막에 빛의 시간을 선물한다. 이 책은 오베의 삶의 방식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소설로, 그의 사랑과 그가 지켜 내려 하는 것들이 책을 읽는 내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

김익록 외 글 / 맘에드림 펴냄

이 책은 현 자본주의 시장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들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소개한다.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발전, 사회적 경제의 의미, 사회적 경제의 핵심인 '협업'을 실현한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핵심의 원리인 협동과 공유에 대한 핵심 개념을 짚어 준다. 이를 통해 민주 시민의 개념을 익히고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활동에 대해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된다.



청소년



청소년

내 이름은 공동체입니다

장성익 글 / 신병근 그림 / 풀빛 펴냄 / 한우리 필독서 선정

이 책은 공동체의 정의를 알아보고, 공동체의 문제와 극복 노력,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과 버릴 것은 무엇인지 알려 준다.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활과 사회에서 주체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오래되고 다양한 여러 마을의 공동체와 협동조합의 모습을 사례로 보여 준다.



한우리독서토론논술 홈페이지(www.hanuribook.com)에서 더 많은 추천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버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으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현아의 그림책 수업

아이들과 슬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해 봐요

이현아 초등교사, <그림책 한 권의 힘> 저자

슬픔을 억누르고 모르는 척하면 행복해질까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을 소개하고 수업활동 팁을 전합니다.

저학년 추천 슬픔 다루는 법

아이들은 어떨 때 슬플까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이 싸울 때 가장 슬픈 심정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 아이들은 자신이 뿌리내린 토양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슬퍼하죠.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글/책읽는곰 펴냄

그림책 <모르는 척 공주>를 펼쳐 보면 아이가 느끼는 심정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부모님이 싸우고 난 이튿날 아침,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아무도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긴 식탁 양쪽 끝에 아빠와 엄마가 앉아서 각각 신문과 책에 얼굴을 파묻고 있죠. 그 사이 어정쩡한 곳에 공주가 앉아서 궁금하고 초조한 마음을 억누른 채 꾸역꾸역 음식을 먹어요. 식사가 끝나면 아빠와 엄마는 “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고, 공주는 못 들은 척 블록만 쌓습니다.

억지로 쌓아 올린 블록은 어느새 성벽처럼 높아져서 공주를 가둬요. 그런 공주에게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만날만할 싸워. 모르는 척했지만, 너무너무 슬퍼.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친구들이 털어놓은 말에 공주도 공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못 살겠대.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난

어떡하지?” 왕자가 털어놓은 말에 공주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아요. “엄마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만, 나도 다 안단 말 이야.”

공주의 솔직한 말에 모두들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려요. 사실은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아이들은 울음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부모님들이 달려와 아이를 안아 줘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죠. 모르는 척 꼭 참고만 있지 말고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된다고, 그래야 엄마 아빠도 네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이 그림책을 읽어 주면서 속삭여 주세요.

Tip.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현아샘 's 그림책 수업

- ① 슬픈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모르는 척 한 적이 있나요? 슬픔을 꼭꼭 참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 ② 이 그림책의 주인공 공주는 친구들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울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나는 슬플 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까요?

고학년 추천 눈물의 의미 생각해보기



엄마, 우리는 왜 울어요?
프란 핀타데라글/아나센데르 그림/그린북

저학년 때는 울음으로 마음 속 슬픔을 표현하던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울지 않으려 애씁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 봐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버티죠.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왜 우는 걸까?’ 그 질문에 아름다운 언어로 대답해 주는 그림책이 있어요. 바로 <엄마, 우리는 왜 울어요?>.

그림책을 펼치면 생각에 잠긴 마리오가 등장하고 엄마는 먼저 묻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윽고 마리오가 속삭이듯 물어요. “엄마, 우리는 왜 울어요?” 그러자 엄마는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대답해요. 아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엄마의 태도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요. 엄마의 대답 역시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큼 깊은 통찰력이 있거든요.

때때로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 빠져 나오려고 할 때, 사람은 읊니다. 또 어떨 때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눈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그림책 속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윽고 이런 구절을 만납니다.

“눈물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천천히 우리에게 물을 주는 거야.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바위로 변하게 될 거야.”

마음껏 울지 못한 채 마음이 경직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펼쳐서 이 문장을 읽어 주세요. 바위처럼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 촉촉한 빗물처럼 눈물을 떨어뜨려도 된다고,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한바탕 울고 나면 어느새 한 뼉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촉촉한 목소리로 말해 주세요.

Tip.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현아샘 's 그림책 수업

- ① 나는 어떨 때 눈물을 흘리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리면서 나에게 눈물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② 슬퍼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다시 도전하는 멋진 당신, 한우리에서 함께 일해요!

「한우리 지도교사 양성반」 3·4월 특별 운영

수강료 할인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수강료 50% 할인

활동 연계

가맹비·수수료 없는 한우리 선생님 활동

정착지원금

회원수 5명, 8명이면 최대 40만원 지급

추가 환급

회원수 8명 이상이면 수강료 50% 추가환급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후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 확인하세요.



진로 내비게이션+

미래 전문직 인공지능 전문가

정진희 홀랜드 진로 상담 강사, <꿈꾸는 미래 진로독서> 저자

Q. '인공지능 전문가'란?

인공지능 전문가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사고, 학습, 모방, 자기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지식을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컴퓨터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Q. '인공지능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인간만이 가진 사고방식,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로봇 등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 기존에 존재하는 검증된 지식을 기계에 학습시켜 기계가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 다양한 형상의 지식을 단순히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지식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끌어내고 지식 학습과 추론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응답을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리 기술을 개발합니다.
- 영상 기반의 단편적 인지 능력을 넘어 인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영상을 이해하는 실시간 영상인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Q.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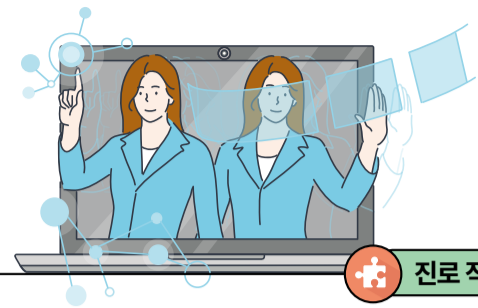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데이터프로그래밍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학, 수리 논리학, 기초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등의 전공자들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초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 시스템 개발자 과정, 데이터베이스 과정, 컴퓨터 네트워크 과정 등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과학, 공학, 심리학, 뇌과학이 만나는 융합 학문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가 많아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로봇 어드바이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설계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게임, 재생에너지, 검색엔진, 빅 데이터, 영상·음성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지식과 수학 실력은 기본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므로 논리적 사고능력과 폭넓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로봇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탐구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Q.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융합기술시대로 바뀌면서 인공지능 중심의 융합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에 인공지능이 쓰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삶의 많은 부분에 이미 사용되고 있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와 빠른 일 처리 능력으로 더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어 딥러닝이 구현되는 시기를 맞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주목하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직종이며 더욱더 필요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진로 직업 유형

직업심리학자 존 홀랜드는 개인의 직업 흥미와 직업 환경의 특징을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여섯 가지 유형 중 자신과 가장 유사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특성을 참고하여 자신이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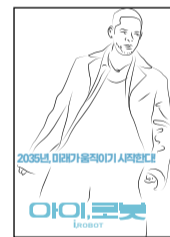
자신의 진로 직업 적성을 파악해 보세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홀랜드 유형 중 IE (탐구형, 기업형) 유형입니다.

유형	성격 특징	선호 직업활동	관련 직업
탐구형(I) (궁금이)	탐구심,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 정확, 지적 호기심, 비판적, 신중	관찰, 상징적, 체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 수반하는 활동들에 흥미. 수학과 과학 적성	과학자, 연구원, 대학교수, 역사학자, 화학자, 의사, 의료 기술자, 물리학자
기업형(E) (나서기)	지배적, 통솔력, 지도력, 말을 잘함. 설득적, 경쟁적, 야심적, 외향적, 낙관적, 열성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선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위신, 인정, 권위 얻는 활동 선호	정치가, 기업경영인, 영업사원, 무역업자, 법조인

IE (탐구형, 기업형) 유형은 지적 호기심과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탐구형과 새로운 일에 대한 모험심과 경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형의 특성을 지닌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발휘해 체계적이며 창의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역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 영향을 주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 전문가에 적합함을 갖춘 타입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관련 영화



<아이, 로봇 (I, Robot)> 2004년 개봉. 12세 관람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소설 <나는 로봇>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배경은 2035년의 시가지입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2035년은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거대기업의 개인용 로봇이 필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지능을 갖춘 로봇에게 생활의 모든 편의를 받으며 편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로봇 3원칙'이 내장된 로봇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뢰 받는 동반자로 여겨집니다.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아닌, 인공지능 로봇의 위협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영화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생각 하게 합니다.

이 외에 인간을 공격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터미네이터>,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지배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 '매트릭스'에 갇힌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은 <매트릭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돕고 인간과 조화롭게 지내며 결국 인간을 꿈꾸고 수명이 유한한 인간이 되는 <바이센테니얼 맨>, 인간의 친구이며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되고 싶어 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아이 아이>,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비서와 같은 존재인 인공지능 컴퓨터 자비스와 무장 슈트가 등장하는 <아이언맨> 등 영화 속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관련 도서



미래 세계의 중심, 인공지능
박유근 글, 미래아이 펴냄. 초등 고학년 이상 추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기에 인간이 만들어 낸 최후의 발명품이라 일컬어지는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이며 그 진화의 끝은 어디인지, 인공지능이 바꿔 놓을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지 인공지능 관련 질문들에 알기 쉽게 답해 줍니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인공지능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간과 기계, 인류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똑똑한 미래를 꿈꾸는 인공지능 전문가
이동훈 글, 토크쇼 펴냄. 청소년 추천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미래 세상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인공지능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 줄 강력한 기술이며 앞으로 세상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하지만 상대적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인공지능 전문가는 우리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할 중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책 관련 발문

-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지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직업과 자신 연결 발문

-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공지능은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짐작해 보고 자신은 그렇게 바뀐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는지 말해 보세요.

더 읽어 보면 좋을 책

- 인공지능백과 (글송이 펴냄, 초등 저학년 이상)
- Job?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거야! (국일아이 펴냄, 초등 전학년)
- 인공지능, 스킨 게임을 만나다 (영진닷컴 펴냄, 초등 전학년)

책 관련 발문

-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나요?
-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확산될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직업과 자신 연결 발문

- 학생 입장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말해 봐요.
-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더 읽어 보면 좋을 책

- 인공지능 전문가 어떻게 되었을까? (캠퍼스먼트 펴냄, 청소년)
-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해부도감 (도서출판더숲 펴냄, 청소년)
- 공금했어, 인공지능 (나무생각 펴냄, 청소년)

책과 하루 ①

도서 직접 선택권과 이천 원

이승현 아동·청소년소설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이승현 작가는** 동화 <아빠가 나타났다>로 제5회 마해송 문학상 수상, 2010 조선일보 신춘문예 등단, 청소년 소설 <내 청춘, 시속 370km>로 제9회 사계절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아동·청소년소설가다. 현재는 소설가 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는 <라인>, <드림 세프>, <나쁜 연애 씬>, <너와 나의 3분>, 동화 <똥 싸기 힘든 날>, <어쩌다 짝꿍> 등이 있다.

“자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 보거라.”

한석봉 어머니는 아들 석봉에게 이랬다던데, 열한 살이 되던 새해 아버지는 내게 천 원짜리 두 장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천 원씩 용돈을 줄 테니 앞으로는 보고 싶은 책을 직접 사서 보면 되겠다.”

늘 엄마가 사 준 전집을 읽던 나에게 ‘도서 직접 선택권’이 생긴 셈이다. 고학년이 되었으니 내가 볼 책은 내가 직접 고를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부모님의 의도였을까. 책의 종류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읽고 싶은 것을 사면 끝이었다. 만화책, 잡지, 종류를 막론하고 책이면 된다, 라는 다소 느슨하고 광범위한 기준에 한껏 들떴다.



단짝 영지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사거리 횡단보도 건너 대학가에 자리한 동네 책방은 신세계였다. 각종 전문서적, 참고서, 대학교재, 화보집, 잡지, 인문서적, 소설, 시집...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책이 다 있는 듯했다. 책방 문을 열면 풍경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인쇄 잉크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책방 특유의 냄새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수다스러운 우리 둘의 목소리까지 낮추게 만들었으니 말 다했다.

책방 주인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며 들어서면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다.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려도 “뭐 찾니?”라고 묻지 않고, 책의 절반을 다 읽고 다른 책을 골라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서성거리는 창작동화 코너 앞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놓였다. 목욕탕 의자 두 개가 나란히, 무심히 푹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재밌는 신간이 많은 날에는 아무래도 책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다리가 아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책을 살피는 우리를 위한 주인 할아버지의 작은 배려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앗싸, 웬 의자? 땡 잡았다!’가 영지와 나의 반응이었다.



나는 지경사와 현암사에서 출간한 창작동화에 열광했는데 영국 기숙학교를 배경으로 한 E.브라이튼의 작품과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같은 내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에 심취했다. 나는 이상하게 늘 다른 사람들의 삶이 궁금했다. 나와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신기해서 좋았고, 나와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신났다. 딱 한 권의 선택만 가능한 용돈, 이천 원이 아쉬울 뿐이었다.

“아, 진짜! 이번 주는 이천 원 더 주지. 그 책은 시리즈란 말이에요.”

간절한 나의 푸념도, 항변도, 어림없었다. 엄마는 그럴 때면 “더 절실한 책을 골라.”라고 조언했다. 덕분에 책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이 생겼고 시리즈 책이 나올 때면 한 주 동안 후속권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내 마음대로 상상해 보는 버릇도 생겼다. 단짝 영지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뒷이야기 상상의 재미를 터득했다고나 할까.

매주 금요일, 동네 책방 나들이는 나의 열한 살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눈에 불을 켜고 책을 고르고, 책값을 계산할 때면 거스름돈과 함께 슬그머니 땅콩사탕을 밀어 주는 주인 할아버지의 다정한 마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가 고른 책을 나름대로 폼퐁(?)하며 거스름돈 200원으로 영지와 함께 사먹던 컵떡볶이의 맛이 아직도 생생하니 이게 무슨 조화일까 싶다.

엄마선생님의 성장일기 ⑦

“엄마선생님이 도와줘서 하나도 안 떨렸어!”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 딸의 발표공포증 극복기

김옥남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용인기흥지부 교사

*<엄마선생님의 성장일기> 코너는 한우리 교사가 엄마이자 선생님께서 경험하는 성장 과정과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자녀·독서 교육 에세이입니다.
*김옥남 선생님은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용인기흥지부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우리 교사입니다. 前 초등 도서 출판 편집자, 現 한우리 교사의 경험을 살려 신문사에 ‘그림책 산책’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틀리면 어떡해, 어떡하냐고!” 첫째 딸의 첫 발표

새 학년 새 학기의 달, 3월입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덕분에 저 역시 떨림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입학 앞두고 지난 몇 달간은 우왕좌왕했어요. 첫 아이의 첫 입학, 엄마인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몰랐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영어도, 수학도 해야 할 것 같고,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무렵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발표회를 연다고 알려 왔습니다. 머리 위로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듯했어요. 발표공포증이 있는 딸아이의 반응이 안 봐도 눈에 뵈웠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발표하는 날에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선포하는 딸. 아이는 평소 말수도 많고 표현력도 좋은데, 발표라는 말만 들으면 유난히 겁을 냈어요. “말할 때 모두 나만 보잖아. 그런데 틀리면 어떡해, 어떡하냐고...” 틀리는 게 싫어서 틀릴 일을 안 만들고 싶어 했죠.

예전 같았으면 아이의 짜증 섞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설전을 벌이는 게 괴로워 도전을 나중으로 미루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독서지도사, 게다가 아이도 이제 어엿한 예비 초등학생이었죠. 아이가 알아서 잘하게 되길 기다리는 것은 엄마선생님께서 직 무유기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직접 해보자! 엄마선생님과 함께 발표 준비

제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여 주는 당찬 발표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와 마주하는 분위기부터 바꿔 보기로 마음먹었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실수하거나 틀려도 괜찮다는 걸, 초등학생 형님들도 틀리면서 배운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만났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럴 때는 말로만 격려하는 것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아이에게 저와 함께 발표를 준비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주도로 발표 자료부터 만들어 보기로 했죠. ‘북아메리카의 문화’라는 예비 초등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발표를 해야 했는데, 아이는 대번에 저와 함께 수업했던 필독서 <이곳은 어디일까요?>를 떠올리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에는 아이가 마우스를 조작해 이미지 검색, 사전 검색을 해보게 했어요. 2~3일쯤 함께 자료를 찾고, 수업 때처럼 글로 쓰며 원고를 다듬어 나갔죠. 발표가 목적이기 때문에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낯선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반복해서 말해 보기도 했습니다.

발표 연습을 할 때는 선생님 기분도 느껴 보라며 지시봉을 쥐어 줬더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최종 연습 때는 동생찬스를 써, 동생 앞에서 발표했어요. 첫째 아이가 동생에게 말하듯 편하게 하되 자신감도 얻길 바랐거든요. 역시나 동생은 선생님이 된 누나를 더없이 우리러봐 주었죠.



아이의 발표력이 며칠 만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 싶지만, 며칠 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발표라면 겁부터 내던 아이가 어느새 주도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고, 동생이 던진 뜻밖의 질문에 답하며 미리 돌발상황에도 대처해 봤으니까요. 드디어 발표하는 날! 재미있게 준비하긴 했지만 과연 100% 실력 발휘를 했을까 궁금했던 제게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도와줘서 발표가 하나도 안 떨렸어! 선생님이 나 지금 학교 가도 되겠다~” 친구에게 질문을 세 개나 받았지만 ‘알아서’ 대답을 해 줬다나요. 나중에 선생님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아이의 표정에서 여유가 묻어나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발표가 아니라 ‘함께하는’ 발표 준비라 부담이 줄어서였을까요? 연습한 대로 발표를 잘 마친 아이만큼이나, 저 역시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때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싶네요.



‘나도 엄마선생님 해볼까...’ 한우리 선생님이 궁금하다고요?

지금 ‘한우리독서토론논술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4월 27일까지 한우리 선생님 모집 상담신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한우리 선생님의 역할부터 교육 과정, 활동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부담 없이 상담만 받아도 좋아요. 상담신청한 전원에게는 기프티콘 선물을! 상담 후 한우리 선생님이로 활동할 경우에는 교육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www.hanuribook.com/> / 문의 02-6276-2512~5]

독해력을 깨워 공부힘을 키우리

모든 공부의 기본은 독해력!
한우리가 아이 독해력을 깨워 공부힘을 키울게요.
이제 다그치지 말고 한우리에 맡기세요.

신학기

선물 증정 이벤트



2~3월 신규 가입 회원 전원

한우리 피크닉 쿨러백 증정

독해력을 깨워 공부힘을 키우리

진짜 공부력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생각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키워 주는
5력 1체 독서지도 시스템

교과서와 연계한 최신 교재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교재는 NO!
매일 필독서를 선정해 교과와 연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재 개발

전문 독서지도사의 노하우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선생님을 통해 한 권을
읽어도 깊이 있게 한 줄을 써도 논리적으로!

한우리  융합독서 교육의 대표
독서토론논술

대표
전화

1577-1909

www.hanuribook.com